

보도설명자료

(‘12. 5. 1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지경부·국토부 산하기관 동반성장 낙제점”

(‘12.5.15, 한겨레 20면)

1. 기사 요지

□ 지경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「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 실적 평가*」에서 하위권 차지

* 지경부는 상생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결과는 기관별 경영평가(기재부)에 반영

○ 지경부 산하 인천종합에너지(A부문), 국토부 산하 주택관리공단(B부문)은 각 부문 꼴찌

○ 평균이하 점수 19개 기관중 지경부·국토부 소속기관은 15곳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□ 지경부 산하 3개 기관(인천종합에너지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) 및 국토부 산하 5개 기관(여수광양항만공사, 인천항만공사, 부산항만공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주택관리공단)은,

○ ‘11.11월 상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반성장 평가대상에 처음 포함된 기관이며,

○ 그에 따라 지경부는 동기관을 시범평가 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제평가를 1년간 유예한 기업들이란 점을 밝힙니다.(기관별 경영평가에도 미반영)

□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민간기업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동반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

※ 문의 : 지식경제부 최우혁 동반성장팀장 (02-2110-3994)